

“한 가마니 18만원”...추가 격리에도 멈추지 않는 쌀값 하락

(80kg)

산지 쌀값 전년비 8.2%↓...부실한 통계에 수급 대책 허술 원인 정부, 초과 생산량 전량 격리...대책 없는 농정에 농민 불만 팽배

정부가 폭락하고 있는 산지 쌀값 회복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정부는 예초 1가마니(80kg) 당 20만원의 쌀값을 약속했지만 현재 쌀값은 18만원 선에 그치고 있다.

통계청의 생산량 및 소비량 통계를 기반으로 마련한 쌀값 안정 대책의 근본적 개선이 절실한 상황에서 올해도 쌀 생산량 전망이 엇나가고 있는 데다, 2023년산 쌀도 5만 t 이상 남아있어 쌀값 20만원을 보장하겠다는 정부 약속이 지켜질 지 미지수다.

24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산지쌀값은 지난 15일 기준 18만2872원으로 1년 전(19만9280원)과 비교하면 8.2% 떨어졌다.

여전히 정부가 약속한 20만원은 커녕 18만원 선에서 오르내리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지난 8월, 9월 등 본격적인 수확기를 앞두고는 산지쌀값이 17만원대를 기록하기도 했다.

쌀값 하락은 지난해 10월 수확기부터 1년째 지속되고 있다. 보통 수확기 이후 쌀 공급량이 많아지면 쌀값이 하락한 뒤, 점점 회복되는 모습과도 다른 추세다.

정부가 지난해 11월 이후 다섯 차례에 걸쳐 쌀

값 수급 안정대책을 마련하고, 공공비축 및 시장 격리 물량을 조절해왔는데도 쌀값이 안정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부실한 통계에 기반한 쌀 수급 대책이 허술한 점이 우선 원인으로 꼽힌다.

정부가 지난해 쌀 생산량 및 소비량을 계산해 쌀 수급대책을 세웠을 당시, 생산량 370만 2000 t, 수요량 360만 7000 t으로 쌀 9만 5000 t 이 남을 것으로 예상했지만 실제 시장격리한 20만 t을 제외하고도 15만 t 이상의 재고쌀이 남아돌았다.

정부는 이런 점을 반영, 올해 쌀값 안정을 위해 지난 1월 벼 재배면적을 2만6000ha 감축하는 내용을 담은 ‘쌀 적정생산 대책’을 마련하고 2-3월에는 미국중합처리장(RPC)을 대상으로 벼 매입 자금 4000억원을 특별 지원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하기도 했다.

이어 지난 6월 당-정 협의회를 통해 지속 하락하는 쌀값 방어를 위해 올해 공공비축 물량으로 2024년산 쌀 40만 t을 구매하는 한편, 2023년산 쌀 5만 t 등을 매입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 9월 10일 선제적으로 초과 생산량

전량 격리 발표 방침을 발표했다. 예상 생산량 363만~368만 t을 넘는 쌀을 전부 사들여 시장에서 격리하겠다는 방침이었다. 이후 지난 10월 통계청 조사를 인용, 10만 t 가량 쌀이 남았을 것으로 예측됐다. 정부는 이같은 점을 들어 초과 생산량의 2배에 달하는 햅쌀 20만 t을 격리하겠다는 대책을 밝혔다.

통계청의 11월 조사에서는 5만 6000 t의 쌀이 초과 생산될 것으로 집계됐다. 이대로라면 초과 생산된 쌀의 4배 가량이 쌀이 시장에 풀리지 않게 된다.

시장에 초과 생산된 쌀이 돌지 않으니 쌀값 안정을 위한 신호로 볼 수 있지만 현장은 못 미더운 분위기다.

당장, 지난 15일 기준 산지쌀값은 18만2872원으로, 최근 5년 중 최고값과 최저값을 제외한 3년 평균가격인 평년가격(19만 1022원)과 비교하면 4.3%(8150원)나 떨어졌다.

여전히 전국 농협 RPC에는 5만 t의 2023년산 쌀이 남아있고, 대책이 없는 실정이다. 이 중 1만 6000 t은 국내 최대 곡창지인 전남지역이 차지하고 있다. 여기에 매년 들어오는 수입산 쌀(40만 t) 문제도 별다른 대책이 없다. 양곡관리법 등에 대한 대책도 없어 농민들의 불만이 팽배하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aT ‘K-푸드 수출 확장’ 모색...현장 방문

김치 제조 업체 예소담 등 방문 원료 수급·수출 동향 등 점검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aT) 홍문표 사장은 지난 21일 김치 제조 업체인 ㈜예소담과 aT 충북 지역본부 방문에 김치 등 대한민국 식품 판로 확대를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사진> 이날 홍 사장은 김치 경쟁력 제고 및 수출 확대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현지 김치 제조·수출업체인 농업회사법인 ㈜예소담을 방문했다. (예소담은 농림축산식품부와 aT가 주최하고 있는 ‘대한민국 김치 품평회’에서 최초로 역대 7관왕을 수상한 업체로, 이날 홍 사장은 스마트팩토리 시설로 운영되고 있는 예소담에서 원료 수급과 수출 동향 등을

점검했다. 홍 사장은 현장에서 “올해 이상기후 등 어려움 속에서도 원활한 원료 수급 체계를 구축하고, 농가와 계약재배를 확대하는 등 농가 소득 증대 및 안정적 수출을 위한 노력에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aT와의 협력을 통해 안전한 먹거리 제공, 수출 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고 전했다. 이어 aT 충북지역본부를 방문해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홍 사장은 “농어촌과 농어민, 축산인이 잘 사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공직자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주어진 임무와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지역 농어촌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한국농어촌공사, 국제교육 분야 지식교류 활성화 협약

2개 기관·4개 대학 등 참여

한국농어촌공사는 지난 22일 국제교육을 시행하는 공공기관, 대학교, 국제기구와 ‘국제교육분야 지식교류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는 한국농어촌공사와 한국수자원공사 등 2개 기관과 서울시립대, 한양대, 인천대, 한경대 등 4개 대학교, UNESCO 물안보 국제연구교육센터 등 총 7개 기관이 참여했다. <사진> 이번 협약을 통해 각 기관들은 ▲국제교육 분야의 강·실습·현장견학 등 교육프로그램 개발·운영 공유 ▲정기적인 지식교류를 위한 정기포럼 개최 ▲기관별 교육생 교류·네트워킹 확대 등 양질의 국제교육을 위한 다양한 분야 등에서 협력하기로



했다. 신홍섭 한국농어촌공사 인재개발원장은 “한국농어촌공사가 보유한 국제교육 분야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하고, 유관 기관 간 협력을 통해 각 기관의 역량도 확대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곡성군배영농조합법인, 농산물우수관리 경진대회 금상

생산부문...체계적 관리 시스템 구축해 해외서 품질 인정 호평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제10회 농산물우수관리(GAP)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곡성군배영농조합법인이 생산부문 금상을 수상했다. 농산물 우수관리는 생산에서 판매까지 각 단계마다 농약, 중금속 등의 위해요소를 기준치 이내로 적절하게 관리해 안전한 농산물을 소비자에게 공급하기 위한 제도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농산물우수관리 인증 확산을 위해 생산·유통·학교급식 등

분야별 전국 우수사례를 선발하는 경진대회를 매년 개최하고 있다. 전남도는 2015년 1회 대회를 시작으로 지난 9년간 연속 수상자를 배출하며 14점(대상 1·금상 4·은상 6·동상 3)의 분야별 다양한 상을 석권했다. 곡성군배영농조합법인은 1996년 설립 이후 농산물우수관리와 글로벌 농산물우수관리 인증을 유지하며, 현재 연평균 500톤을 8개국에 수출하고

연 매출 22억원을 달성하고 있다. 특히 미국 검역단지로 지정된 국내 13개 단지 중 하나로, 미국을 포함한 다양한 국가에 판로를 확대해 글로벌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했다. 곡성군배영농조합법인은 일반 배와 차별화된 고품질 배를 생산하기 위해 농가별 영농일지, 잔류농약 검사 등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출하된 배는 철저한 검역을 거친 후 전량 수출돼 해외시장에서 품질을 인정받은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윤현석 기자 chadol@

‘생육 환경 양호’ 올해 고추 생산량 10.4% ↑

올해 고추 생산량이 지난해보다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고추 개화기인 지난 7-8월 고추 생육 환경이 양호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다만 참깨와 고랭지감자 생산량은 전년과 비슷한 수준만 생산된 것으로 집계됐다. 24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고추, 참깨, 고랭지감자 생산량 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고추 생산량은 6만8074 t으로 지난해(6만1665 t) 대비 10.4% 증가했다. 재배면적은 2만6430ha로 전년 대비 2.6% 줄었지만, 10a 당 생산량은 13.3% 증가했다. 통계청은 같은 재배면적 당 생산량이 크게 증가한 것은 지난 7-8월 고추 개화·결실기에 일조량이 증가하고, 강수량은 감소하는 등 고추 생육에 적합한 기후가 형성됐고, 병충해 등 피해가 전년보다 감소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지역별로는 경북이 1만8379 t (27.0%)로 가장 많았고, 전남(1만333 t·15.2%), 전북(8710 t·12.8%) 순이었다. 올해 참깨 생산량은 9002 t으로 1년 전보다 0.3% 증가했다. 재배면적은 11.4% 감소했지만, 10a 당 생산량은 13.3%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전남이 1973 t (21.9%)로 전국에서 가장 생산량이 많았고, 경북(1955 t·21.7%), 경남(1036 t·11.5%) 순으로 집계됐다. 고랭지감자 생산량은 지난해보다 0.2% 감소한 12만6399 t을 기록했다. 이는 올해를 잇따른 폭염으로 주산지인 강원 등이 고온 현상으로 생육이 원활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른 생산력 저하로 재배면적은 2.4% 증가했지만, 10a 당 생산량은 2.6% 감소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www.e-dk.co.kr

쾌적하고 깨끗한 생활을 위한 스마트 가전이 한 곳에!



스탠드 공기청정살균기

벽걸이 공기청정살균기



제습기



레인지후드



전기룩탑

공기청정살균기 | 공기청정기 | 공기순환기 | 제습기 | 레인지후드 | 전기룩탑 판매 및 A/S 문의 1544-1154